

(2026년 9월 23일 수요일 5면)

탄천의 아름다운 변화, 지속적인 관리로 완성해야 합니다



▲강정선 의원
(비례대표)= 총
38억 원의 예
산이 투입되어
조성된 탄천
이팝나무길과
맞닿은 생태경
관보전지역에
생태교란식물

방치, 토사 유실, 수목 고사 등의 문제가
발생했던 점을 지적하며, 단순 사후 정

비를 넘어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
노력을 당부하고자 한다. 송파구시설관
리공단이 위탁 관리 중인 해당 구간의
정기 순찰 실적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
개하고, 생태교란식물의 개화 전 제거
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도입할 것
을 요청한다.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도
정비 완료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
기 정비 여부와 반복 발생 가능성을 지
속 지도·점검해 탄천을 명실상부한 송파
의 명소로 완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.